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저산소증의 기억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이슬람 전사의 탄생



저산소증의 기억

수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포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 기쁨에 시간이 빨리 가기를 소원했었다. 세포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놀기도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즐거웠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신선한 산소가 엄마의 자궁과 내가 있던 나팔관 속으로 솔솔~ 불어올 때면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저 앞에 있던 세포는 앞으로 심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계속 움직이는 게 좋단다. 심장이 되면 평생 박동하는 세포가 되어 살아있음의 최전선에 서고 싶단다. 내 뒤에 있던 세포는 뇌 세포가 되고 싶어 했다. 원래부터 생각하기를 좋아했던 이 친구는 뇌의 전두엽 세포가 되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전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가 하면 저 끝에 있던 조금 특이하게 생긴 친구는 생식세포가 되어 자손을 이어 주는, 자기 말로는 역사를 이어 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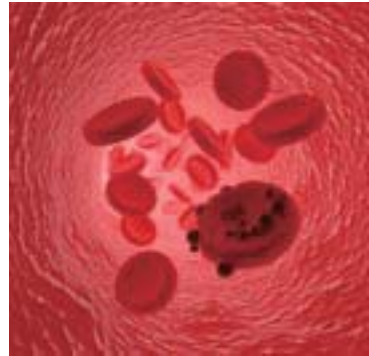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아홉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관으로든 분화할 수 있는 상태이다. 즉, 심장세포로, 뇌 세포로, 생식세포로... 원한다면 몸의 어떤 기관으로든 분화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최근에야 우리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우리가 미래 국가 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한다.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운 생명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인데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다.

신선한 산소 바람을 맞으며 서로가 꿈꾸는 미래를 나누던,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막연하지만 그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세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곤 했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다. 세포의 수가 늘어날수록 산소의 양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산소 부족이 우리의 중심을 강타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 공급처가 필요하다. 엄마의 자궁은 더 이상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줄 만한 여력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있다가는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 억울하다. 이제야 겨우 꿈꾸던 미래를 향해 기지개를 켜는 뿐인데, 여기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수정되고 겨우 며칠 지난 상태라 엄마도, 아빠도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임신 진단을 받으려면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 내 삶은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걸까.

절망과 어둠의 벼랑 끝에서 미세한 생명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혁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에서 생겨났다. 벼랑 끝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도 오히려 편안해지는 때가 있다. 내가 그랬다.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는구나 생각하던 중 하나의 질문이 구름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나도 내가 이런 질문을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나에게 이 질문이 생명의 혁신을 이루는 질문이 되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는 몸의 어떤 기관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만능의 세포이다. 따라서 내 몸에 부족한 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만능의 세포이다. 그러므로 이 저산소증을 나는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런 정체성의 확인은 이제 스스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루어 냈다.

이제 나는 평생 산소를 간직하고 운반하는 혈액세포와 폐를 만드는 세포들로 변환될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그들이 꿈꾸던 대로 심장, 뇌, 생식세포의 길을 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섭리된 꿈이기에...

돌이켜보니 저산소증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산소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혈액도, 혈관도, 심장도, 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혈액이 되고픈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자극했고, 그 유전자는 줄기세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어 혈액과 혈관으로 자라나게 했으며, 폐와 심장이 생겨나게 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내 인생 초기의 저산소증은 그 어떤 은혜와도 견줄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였다. 지금도 상황이 어렵고 답답할 때면 그때를 추억한다. 내 삶의 빛이 되어 준 저산소증의 기억 말이다. 